

복구,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멘토링 추진

**'마음톡톡 서포터즈' 본격 활동
밀착상담·문화활동·직업체험 등
정서 고립·심리 불안 해소 지원**

광주 복구가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1대1 밀착 멘토링 추진에 나선다.

12일 복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산동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마음톡톡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마음톡톡 서포터즈'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문 멘토를 1대1로 매칭해 정서 교감과 자문 등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고립감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며,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서포터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간담회'는 멘토(전문가) 및 멘티(자립준비청년) 각 10명과 관계자를 포함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멘토 표창장 수여', '지원사업 안내', '멘토·멘티 매칭 및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복구는 향후 아동·청년 정서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멘토가 대면 또는 유선으로 멘티에게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밀착 상담, 문화 활동,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인 복구정장은 "이번 마음톡톡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이 멘토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구는 자립준비청년



12일 광주 복구 우산동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간담회'가 진행됐다. **광주 복구 제공**

의 안정적인 홀로서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오는 3월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자격증 취득비용과 취·창업 성공

축자금 등 최대 200만원의 자립준비금을 제공하는 '꿈을 향한 첫걸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이들의 취업 및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한층 강화
서구, 지난 10일 위원회 첫 회의**

광주 서구는 올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며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서구는 지난 10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25년 제1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마을활동가 선순환 역량강화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성과 확산 등 '2025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서구가 '제6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도시로서 민선 8기에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전국의 모범사례로 확산시켜 위상을 높여 갈 것을 제안했다.

서구는 2월 중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진 주민자치과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정체성에 맞는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 마을공동체 문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구는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90개소에 3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공모사업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 단계별(배움·재움·이룸) 성장을 이끌어냈다.

특히 마을활동 전문지원가 8명을 양성해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힘썼다.

정상이 기자

**'장애친화가게' 찾는다
동구, 관내 음식점·카페 등 조사**

광주 동구가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함께 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2025년 동구 장애친화가게'를 발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다음달 21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카페 등 211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관내 13개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 협의체 위원 등이 참여한다.

조사 기준은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세부 기준은 △출입로 턱 2cm 이하 △문 폭 80cm 이상 △내부 턱 2cm 이하 △휠체어 탑승 상태로 이용 가능한 테이블 유무 △테이블 아래 하부공간 45cm 이상 △화장실 턱 2cm이하 △화장실 문 폭 80cm이상 △화장실 안전 손잡이 유무 등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장애인 화가게로 선정된다. 향후 선정된 업소에는 현판 제작,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장애인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친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모든 주민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민현기 기자**



**고령화사회 노인 활동 지원 강화
광산구,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광주 광산구가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광산구는 지난해보다 40억 늘어난 310억원을 투입해 총 7386개의 노인 일자리를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해 사회활동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는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노인 공익활동 사업 5183개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 1170개 △노인들이 만든 상품을 생산·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체사업단 592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취업지원사업 441개가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던 신규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폐의약품 수거하는 시니어폐의약품수거활성화사업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스마트 똑똑 사업 △경로당 물품 및 시설 점검 등 경로당 실태를 조사하는 경로당 실태조사단 사업 △지역 축제 등을 홍보하는 동네방송 홍보단(서포터즈) 사업 등 총 17개를 창출해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확대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령화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광산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서구 포트홀 응급 정비반 관계자가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포트홀 응급 정비반' 선제 가동

적극 행정으로 교통사고 예방

광주 서구는 동절기 잦은 폭설과 강우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도로파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오는 3월15일까지 한 달간 응급 정비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는 해빙기를 앞두고 포트홀로 인

한 안전사고 및 차량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 정비반을 3개조 7명으로 구성했다.

응급 정비반은 도로 내 포트홀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 도로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또한 포트홀이 발생이 잦고 많은 구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이

다. 이승구 건설과장은 "포트홀은 차량의 주행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유발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서구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트홀로 인한 불편신고도 서구 건설과(062-360-7486~7) 또는 안전신문고, 문자하랑께(010-3080-8249)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정상이 기자**

남구, '감염병 예방 교육' 확대 운영

**지난해 경로당서 최초 시행돼
올해 아동센터서도 방문 교육**

광주 남구가 지난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경로당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감염병 고위험군인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남구 소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지난해 남구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계절별 유행 감염병과 예방수칙 교육, 손씻기 뷰박스 체험형 교실 등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경로당 화장실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남구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대상

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수두와 백일해가 급증한 만큼, 아이들의 면역력 및 개인위생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지난해 수두에 걸린 아동은 71명에서 111명으로, 백일해는 1명에서 40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체험 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